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수질 개선 위한 수질환경보전회 개최

김영찬기자 | 승인 2026.06.18 18:05 | 11면

지자체·전문가·마을주민 참여 협력적 수질관리 거버넌스 구축 나서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지난 17일 지역 주민,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 /한
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지난 17일 지역 주민,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환경보전회에는 지자체 공무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 마을 주민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업용저수지의 수질 현황 및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저수지 수질 현황 및 측정 결과 공유▲기존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
▲참여 주체별 수질관리 역할 정립 및 거버넌스 운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지역 공동체와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통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수질 개선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재경 지사장은 "농업용저수지의 맑고 건강한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사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전문가, 마을 주민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야말로 수질환경 보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앞으로도 수질환경보전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보전 및 친환경 농촌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